2016 새 설계

강 인 규 나주시장

"시민 중심 체감행정 집중…에너지 수도 조성 올인"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 체감행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호남 제일의 행복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6일 "2016년 최우선 시정과제로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중심 체감행정에 집중하겠다"며 신년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노인건강보조지원, 안심귀가서비스, 진로진학지원사업을 3대 역점 체감정책으로 적극 시행하겠다"면서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어르신들과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2015년은 호남 제일의 역사·문화도시, 농업·농촌 활력도시, 원 도심과 혁신도시가 상생하는 행복도시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고 회고한 뒤 "올해는 지난해 9월 최종 확정된 호남고속철의 나주역 정차를 비롯한 빛가람에너지밸리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올해 나주건설의 먹구름으로 여겨졌던 혁신산단 분양과 나주형로컬푸드 확장,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에너지기업 유치·인프라 구축 총력

읍성권 문화특화지역 만들기 박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본격 시행

민선 6기 취임 직후부터 민원 현장을 강조해온 강 시장은 "올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실천하는 한 해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 행정활동에 주력하겠다"면서 "특히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찾아다니는 발품팔이 행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농업인 월급제, 로컬푸드, 100원 택시 등 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민 중심 체감행정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클린도시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클린 나주 캠페인'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고,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손님맞이를 위해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특히 그동안 혁신도시 인근에서 악취와 폐수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호혜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시설 단계적 정비와 월산제 퇴적 오니 준설, 한센인 양로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자치단체의 해결 과제인 영세농과 여성농, 고령농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강 시장은 "지역경제 기반산업인 농업·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착공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을 확대하고, 벼 자동화 육묘장도 등도 확충해 농업 생산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침체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시장은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돼 읍성권 일원에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이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된다"면서 "읍성권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사람이 사는 박물관'을 모토로 원도심 문화적 핵심 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산강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북망문 복원공사와 향청 복원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주요 역점 사업은

▲빛가람에너지밸리조성· 혁신산단 분양 박차
▲깨끗하고 아름다운 클린도시 조성
▲영세·여성·고령 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포괄사업비 폐지
▲시민중심 체감행정 확대 추진

강 시장은 나주 혁신산단 내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밸리조성 사업도 올해 주요 현안 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규모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고 있다.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면서 "원도심 지중화 2단계 사업과 에너지밸리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시민 원탁회의, 농업인과 청소년과의 대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심성 시장 포괄사업비 폐지 등 행정 내부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kwangju.co.kr

강인규 시장 내일부터 20개 읍면동 순방 의견 청취

강인규 나주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을 위해 읍면동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은 민선 6기 나주시의 시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8일 오전 금남동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금천면 등 20개 읍면동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순방에 나선다.

읍면동 연두순방은 지역의 현안문제 및 주민 애로사항 등을 지역주민과 시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다.

특히 시민이 직접 나주시장을 상대로 각종 민원문제와 숙원사업 등을 건의하고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또 이번 순방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참여자를 확대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평소 시정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먼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화 장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조치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바리스타 자격시험 응시 장애학생 9명 전원 합격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2년 연속 바리스타 자격시험에 응시한 관내 장애학생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는 바리스타 2급 자격시험에 9명 전원이, 2014년에는 7명이 합격했다.

나주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창업교육 거점센터를 운영중이다. 이 거점센터의 핵심 중 하나는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인 '향기로운 커피향으로 꿈을 job(잡)아라'다.

바리스타 교육은 진로·직업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학생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나주교육청은 강조했다. 이번 합격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바리스타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나주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조기 안착 성공

하루 평균 200여명 찾아

40일간 1억6800만원 매출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이 지역민의 성원에 힘입어 조기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임시개장에 이어 25일 정식개장한 이후 40여일동안의 영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6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루 평균 200여명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1일 평균 매출도 400만원대로 조사됐다. 이는 개점 이후 꾸준히 판매물품을 늘리고 농산물의 안전성도 확인되면서 빛가람동 젊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단골 고객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일 수확·판매중인 신선 채소류의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0일간의 영업을 통해 출하 농가당 평균 30만원씩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농가들은 1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홍형석 센터장은 "아직 직매장 초기라서 농가에 돌아가는 몫이 낮은 편이지만, 올해에는 직매장 매출도 늘고 다른 로컬푸드 사업으로 확대하면 출하농가 소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나주시는 다양한 홍보 및 소비촉진 활동을 위해 주부 50여명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했으며, 서포터즈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종의 농산물을 무작위 추출해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농산물이 검사기준을 통과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올해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도심에 직매장 본점 및 로컬푸드레스토랑을 개장할 예정이며, 로컬푸드가공 활성화를 위한 농가가공 활성화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농업인 월급제 대폭 확대

올해 500농가 이상 참여

나주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대상지역과 농가 수를 대폭 확대한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4개 농협 6개 읍면, 162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중이며, 1인당 월평균 93만원씩 모두 10억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12개 농협 19개 읍면동에서 500농가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이자 비용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한다.

각 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월급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월급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대농의 경우 한도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그동안 수확철에 앞서 빚을 내 영농비와 생활비를 감당해 오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